

에너지 비용·탄소 중심 평가로 전환되는 영국 EPC 제도 개편 동향

해당국가	영국	기관(기업)	영국 정부	동향분야	기술	국토교통 기술분류	건축
------	----	--------	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

- 영국 정부는 '26년을 전후로 에너지 성능 인증서(EPC) 제도를 개편하여 기존의 단순 효율 등급 중심 평가에서 실제 에너지 비용과 탄소 배출을 정확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평가 체계 개선 추진
 - 기존 EPC 등급이 건물의 실제 에너지 사용과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평가 방식 개선 및 정보 제공 기능 강화
 - 건물의 단열 성능뿐 아니라 난방 시스템 효율과 에너지 사용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인 에너지 성능 평가 체계로 전환 추진
 - 주택 소유주와 임대인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과 예상 비용·절감 효과를 함께 제공하여 실질적인 개선 투자 유도
 - 고효율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과 저금리 대출 상품을 연계하는 등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강화 및 제도 활용도 제고 추진
 - 에너지 성능이 낮은 건물에 대한 규제 강화 방향이 논의되고 있으며 고효율 주택에 대한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건물 부문의 탄소 저감 유도
 - 평가 체계 개선과 함께 에너지 진단 과정의 품질 관리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준 정비를 병행하고, 평가 결과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 강화
- EPC 개편은 건물 에너지 관리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 산업 성장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
 - 건물의 실제 에너지 성능 정보 제공이 강화되면서 소비자의 선택 기준 변화와 에너지 효율 중심의 주택 시장 형성의 가능성 확대
 - 에너지 비용과 효율 정보를 기반으로 주택 선택이 이루어지며 에너지 성능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 가능
 - 노후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수요 증가에 따라 단열재 및 고효율 난방 설비 중심의 에너지 리모델링 시장 확대 기반 형성
 - 건물 에너지 성능 데이터 활용 확대와 정책 연계를 통해 중장기적인 에너지 관리 체계를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
 - 공공·민간 에너지 사용 데이터 축적을 통해 건물별 소비 특성 분석이 가능해지고, 정책 수립과 에너지 관리 개선을 위한 근거 확보
 - 에너지 성능 기준을 국제 기준과 연계하여 건물 부문의 탄소 감축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, 향후 글로벌 에너지 규제 환경변화에도 대응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 마련

※ 출처 : Building Energy Experts(2026.01.22), EPC Reform Confirmed: EPC Changes 2026